

수행평가 활동지(I)	독서	
<활동 1> 책 선정	탐구 주제 탐구 주제 관련 책 선정	정서적 · 발달적 차이를 가진 청소년에 대한 학교와 사회의 편견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하는 포용적 태도를 기르기 위한 방안 탐구 아몬드
<2-1> 선정된 책에서 드러난 개인 혹은 사회 문제에 관한 인식 정리		1.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정한 책에서 자신이 선정한 개인 혹은 사회적 문제에 관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여 정리함. 아몬드에서 가장 먼저 드러나는 문제는 “다른 사람과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쉽게 낙인찍는 사회의 시선이다. 윤재는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이상한 아이로 취급되고, 곤은 가난과 불안정한 가정환경 때문에 폭력적인 문제아로만 보인다. 주변 어른들과 친구들은 이들의 배경과 마음을 이해하려 하기보다, 위협하거나 이상한 존재로 먼저 판단한다. 이 과정을 보면서 나 역시 평소에 누군가를 걸모습이나 첫인상으로만 판단해 온 적이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또 학교와 사회가 “평균적인 학생”의 기준에 맞추어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 서툴거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은 쉽게 소외된다는 점도 알 수 있었다. 결국 작가는 개인의 문제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은 사회의 시선과 구조에서 비롯된 사회 문제일 수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활동 2> 책 읽기	<2-2> 선정된 책에서 드러난 탐구 주제와 관련된 문제 해결 방법 정리	1. 탐구 주제와 관련하여 자신이 선정한 책에서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개인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정리함. 작품 속에서 제시되는 해결 방법은 거창한 제도 변화보다도, 가까운 관계 속에서의 이해와 지지가 먼저라는 점이다. 윤재의 할머니와 엄마는 윤재의 상태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가 세상과 소통할 수 있도록 꾸준히 연습시키고 기다려 준다. 또 담임선생님과 주변 몇몇 친구들은 윤재를 “이상한 애”로 단정하지 않고, 그가 자신의 속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 곤의 경우에도 처음에는 폭력적인 행동만 보였지만, 윤재와의 관계를 통해 조금씩 마음을 열고 변해 간다. 작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 정서적 문제를 가진 청소년이라도 주변 사람들이 “왜 저럴까?”라고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비난 대신 관심과 대화를 건넬 때 변화의 가능성성이 생긴다고 말한다. 또한 학교 안에서 다양한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상담, 멘토링, 또래 관계 회복 프로그램이 중요하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하고 있다고 느꼈다.
	<2-3> 선정된 책에서 드러난 문제 해결 방법과	1. 필자가 제시하고 있는 개인 혹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에 근거가 되거나 관련 있는 연구자료를 조사함. 2. 자료의 출처를 먼저 밝히고 해당 연구 자료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함. 1. 보건복지부 「청소년 정신건강 실태조사」

	<p>관련된 기준 연구자료 조사</p> <p>이 조사에서는 많은 청소년이 우울감과 불안을 겪지만, 편견과 시선 때문에 상담·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힌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의 이해와 지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는 『아몬드』에서 윤재와 곤이 편견 때문에 고립되는 모습과 연결된다.</p> <p>2. 한국교육개발원 「포용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연구보고서</p> <p>이 보고서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생들이 함께 배우는 포용교육이 학교 폭력과 따돌림을 줄이고, 학생들의 정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교사의 인식 교육, 또래 멘토링, 상담 프로그램 등이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시된다. 이는 작품에서 주변 인물들이 윤재를 이해하고 기다려 줄 때 변화가 일어나는 모습과도 맞닿아 있다.</p>
	<p><3-1> 선정된 책에서 드러난 필자의 생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 정리하기</p> <p>『아몬드』의 필자는 정서적으로 다르다고 해서 잘못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며, 진짜 문제는 그 다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주변의 시선이라고 말하는 것 같다. 나는 이 견해에 동의한다. 실제 학교 생활에서도 “조용하다”, “눈치 없다”는 이유만으로 친구를 이상하게 보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 때문이다. 작품 속 인물들이 서로를 이해해 가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조금만 더 천천히 상대를 알고자 한다면 많은 갈등과 폭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느꼈다.</p>
<활동 3> 주제 탐구 보고서 작성	<p>1. 선정한 책을 읽으며, 필자가 밝힌 문제 해결 방안, 혹은 대안과 연계하여 탐구활동 주제를 설정함. ex)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통하지 않는다.</p> <p>2. 탐구 주제를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반드시 밝힐 것.(자신이 선정한 탐구활동 주제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 됨.) ex)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이가 많이 있다.</p> <p>3. 탐구 활동 주제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할 것.(무엇을 밝힐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면 됨.) ex) 새로이 28자를 만든다.</p>
	<p><3-2> 탐구 활동 주 제 선정</p> <p>1. 『아몬드』에서 작가가 제시한 해결 방법이 “이해와 지지, 포용적인 환경 조성”이라고 생각하여, 정서·발달 차이가 있는 청소년을 학교와 사회가 어떻게 포용할 수 있을지를 탐구 주제로 선정하였다.</p> <p>2. 우리 주변에서도 감정 표현이 서툴다는 이유만으로 따돌림을 당하거나 “이상한 애”로 불리는 친구들이 있어, 이 문제를 그냥 넘기기보다 왜 중요한지 깊게 생각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p> <p>3. 이번 탐구를 통해 학생들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는 태도가 왜 필요한지</p>

	<p>밝히고, 학교에서 상담·교육 프로그램 등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는지 정리해 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p>
	<p>1. 탐구 과제에 대한 탐구 및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제시할 것. 2. 탐구활동의 과정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도록 서술할 것.</p>
<3-3> 탐구활동	<p>먼저 『아몬드』를 다시 읽으며 윤재와 곤의 행동을 ‘편견을 받는 장면’, ‘이해와 지지가 나타나는 장면’으로 나누어 정리하였다. 그다음 보건복지부 조사와 한국교육개발원 연구보고서를 읽고, 청소년 정신건강 지원과 포용교육에서 제시하는 해결 방안을 목록으로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작품에서 드러난 해결 방법과 연구 자료의 내용을 비교하여, 공통점(편견을 줄이는 인식 교육, 상담과 지원 제도, 주변 사람들의 지지)과 차이점(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학교 정책을 제시한다는 점 등)을 도표로 뚜어 분석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소설 속 메시지가 실제 정책 방향과도 연결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p>
<3-4> 탐구활동 결과 정리	<p>1. 탐구 활동의 결과를 요약 정리함. 2. 탐구 주제에 대해 활동을 하면서 자신이 느끼고 깨달은 내용을 서술함. 3. 탐구활동의 결과가 자신이 선전한 탐구주제와 관련된 개인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떤 영향을 줄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서술함.</p> <p>이번 탐구를 통해 나는 정서적·발달적 차이를 가진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어떤 시선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돋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았다. 『아몬드』라는 작품에서는 주인공들의 관계 변화와 주변 인물들의 태도를 통해, 편견 대신 이해와 지지가 주어질 때 개인이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또한 관련 연구 자료를 확인하면서, 포용적인 학교 문화와 정신 건강 지원 제도가 실제로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근거도 알게 되었다.</p> <p>2. 탐구 활동을 하면서 느끼고 깨달은 점</p> <p>처음에는 윤재처럼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자료를 조사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었구나” 하는 반성을 하게 되었다. 누군가 이상해 보이는 행동을 할 때, 그 뒤에 어떤 사연과 어려움이 숨겨져 있을지 상상해 본 적이 거의 없었다는 것도 깨달았다. 앞으로는 친구들이 조금 다르게 행동하더라도 함부로 놀리거나 소문을 내기보다, 왜 그런지 한 번 더 물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p>

는지 먼저 생각해 보려 한다.

3. 탐구 활동 결과가 개인 및 사회 문제 해결에 줄 영향에 대한 나의 생각이 탐구 활동은 나에게 “다름을 문제로 보지 말고, 함께 살아가기 위한 조건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관점을 심어 주었다. 개인적으로는 주변 친구들의 행동을 더 섬세하게 관찰하고, 어려움을 겪는 친구가 있다면 먼저 말을 걸어 보려는 용기를 갖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학교 안에 더 많은 상담 시스템과 포용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제도들이 실제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세대가 편견을 줄이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꼈다. 작은 태도 변화가 모이면, 『아몬드』 속 인물들처럼 상처받은 청소년들도 자신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

◆ 작성 방법 ◆

- ◎ 글씨체: 함초롬 바탕, 글씨 크기: 10pt
- ◎ 양식은 바꾸지 말 것
- ◎ 제출 기한을 지킬 것. 12월 15일(월) 16시 30분
 1. 반장이 취합 후 제출 파일 & 출력물 모아서 제출
 2. 반장 제출시 미제출자 체크해서 제출할 것